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바이든 어제 연두교서 핵심 내용은?
- WSJ: 백악관 발표, “인건비 인플레 더 둔화 중”
- Bloomberg: 미국인 50%, “작년보다 살기 더 힘들어졌다”
- WSJ: 파월 의장, “1월 일자리 급등, 인플레 싸움 힘겨울 수 있어”
- Bloomberg: 미 중고차 가격 “깜짝” 급등...인플레 우려 키운다

#### [미국 금융]

- WSJ: 다국적 기업 수익, 달러 강세로 흔들린다
- CNN Business: 세금 환급 빨리 받기 원하는가?

#### [뉴욕시]

- NYT: 뉴욕시 공무원 접종 의무화 철회된다

#### [미중 무역]

- CNN Business: 미-중 무역 사상 최고치 기록...탈동조화 “무색”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메타, 다수 관리자들에게 “일선 업무 하거나 떠나라”
- Bloomberg: Z세대 근로자 5명 중 4명, “올해 이직 원한다”
- Bloomberg: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돈을 버는 방법
- Bloomberg: CVS, 1백6억 달러에 Oak Street Health 인수 합의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Here Are the Key Takeaways From Biden’s State of the Union Speech

#### 바이든 어제 연두교서 핵심 내용은?

- **중국:** 미국 상공의 첩보 풍선 사건 관련 “미국 자주권 위협 시 우리 국가를 보호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주석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한다(unenviable position), 이는 경제적인 대응에 힘겹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그린 에너지:** 클린 에너지 정책 목표를 강조하지만 향후 10년간은 오일 사용 필요하다고 언급.
- **이민 정책:** Dreamers로 불리는 서류 미비 이민자와 농장 노동자, 임시 체류 이민자들을 위해 시민권 길을 열어주기를 요청함.

## Bloomberg 기사

**WSJ: New White House Wage Data Show Slowing Pressure on 'Supercore' Inflation****백악관 발표, “인건비 인플레 더 둔화 중”**

- 백악관이 오늘 수요일 블로그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실업률이 감소하지만 임금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백악관 Council of Economic Advisers가 올린 블로그에 따르면 1월 연방 노동부의 일자리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 즉, 저임금 업종과 고임금 업종 간 고용 변동 때문에 노동부의 월별 시간당 임금 수치가 왜곡되고, 또한 분기별 고용 비용 지수가 너무 광범위 하다고 말했다.
- 백악관에 따르면 비관리직(nonmanagement) 노동자의 초 근원 (Supercore)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3월 연율 8%에서 올해 1월 5.2%로 많이 감소했다.

## WSJ 기사

**Bloomberg: Half of Americans Say They're Worse Off, Most Since 2009**  
**미국인 50%, “작년보다 살기 더 힘들어졌다”**

- 이 같은 ‘더 못 살겠다’ 비율은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 특히 연 4만불 미만 가계 소득을 가진 이들의 61%는 더 살기 힘들다고 말했고, 중간층과 고소득층은 이 같은 비율이 49%, 43%로 각각 답했다.
- 이 같은 부정적인 답변의 이유는 고물가, 금리 상승, 주식 가격 하락 탓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60%는 지금보다 앞으로 상기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 Bloomberg 기사

**WSJ: Fed's Jerome Powell Says Hiring Surge Shows Why Inflation Fight Could Be Difficult****파월 의장, “1월 일자리 급등, 인플레 싸움 힘겨울 수 있어”**

- 파월 의장의 고민이 있다. 1월 50여만명의 일자리 급등으로 인플레와의 싸움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많은 투자가의 시점보다 더 걸리겠다고 언급했다. 생각보다 강력한 노동시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워싱턴 DC 소재 Economic Club 토론에서 밝혔다.

- 그는 경제가 연준의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이터를 보일 경우 금리를 더 높게 올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 즉, 노동 시장 일자리 보고서와 높은 인플레이 수치가 보일 경우 연준은 이미 가격에 반영된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CME Group에 따르면 연준은 향후 두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각각 0.25% 올릴 것으로 금리 선물 시장 투자자들은 예상한다.

WSJ 기사

## Bloomberg: Surprise Used-Car Price Jump Adds to Fed's Inflation Worries

### 미 중고차 가격 “깜짝” 급등...인플레이 우려 키운다

- 관련 기관 Manheim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1월 평균 중고차 가격이 12월보다 2.5% 올랐다. 이는 지난해부터 15%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깜짝 반등한 것으로, 인플레이가 완화되고 있다는 희망을 꺾을 가능성이 있다.
- 중고차 가격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1% 포인트 증가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5베이시스 포인트 오른다.
- 이는 중고차 가격이 완화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이 다시 중고차 시장에 돌아온 데에 따른 반등으로 보인다. 1월 중고차 판매는 12월보다 16%,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WSJ: Strong Dollar Still Rattles U.S. Multinational Corporate Earnings

### 다국적 기업 수익, 달러 강세로 흔들린다

- 관련 조사 FactSet에 따르면 매출의 반 이상을 미국과 지역에서 기록하는 S&P 500 기업들의 4분기 수익은 8.7%로 줄어들고, 반면에 매출 대부분을 미국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3%의 수익만 하락하는 중이다.
- 이들 전체 회사들 중에 55%가 수익 보고를 한 상태다. 해외에서 수출하는 경우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아 달러 아닌 화폐의 판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WSJ 기사

## CNN Business: Want your tax refund faster? Here's what to do 세금 환급 빨리 받기 원하는가?

- 우선 전자 세금 신고를 하라. 페이퍼로 신청할 경우에는 4주 이상 걸린다.
- Form 8888을 작성해 보내 IRS가 당신의 금융 계좌 중에 한 개, 두 개, 3개 계좌에 입금토록 하라. 예를 들어 일부는 당좌예금 계좌로, 나머지는 저축 계좌로, 나머지는 IRA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정할 수 있다.
- 환급이 보류될 때가 있다. 즉, 당신의 신고서에 당신이 기재한 정보와 IRS 파일 정보가 틀리거나, 단순한 실수, 오타 등 때문이다. 신고하기 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라.

CNN Business 기사

### [뉴욕시]

## NYT: New York City Ends Vaccine Mandate for City Workers 뉴욕시 공무원 접종 의무화 철회된다

- 뉴욕시는 곧 시 공무원들의 코비드 접종 의무화 시책을 철회할 예정이다.
- 뉴욕시의회 의장에 따르면 현재 시 공무원 96%가, 뉴욕커 80% 이상이 주요 접종을 마친 상태이므로 접종 의무화 시책을 철회하게 된다는 것.
- 이에 따라 현재 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 방문객은 최소 한 차례 접종 확인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 뉴욕시 접종 의무화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실시, 이를 거부한 수백명이 해고되고 소송을 제기했다.
- 그동안 뉴욕시는 작년에, 민간 근로자와 식당에서, 작년 9월에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끝냈다.

NYT 기사

### [미중 무역]

## CNN Business: US-China trade defies talk of decoupling to hit record high in 2022 미-중 무역 사상 최고치 기록...탈동조화 “무색”

-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 간에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이 202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탈동조화(decoupling) 추세를 무색하게 했다.

- 이번 주 화요일 발표된 미 연방 경제분석국의 자료에 따르면 양국 간의 상품 무역은 2022년 6천 9백6억 달러, 대중국 수출은 24억 달러 증가한 1천5백38억 달러, 중국산 수입은 318억 달러 늘어난 5천3백68억 달러를 기록했다.
-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국 소비자에게 제때 제품을 파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자사에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탈동조화 정책이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무색하다는 것.

CNN Business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Meta Asks Many Managers to Get Back to Making Things or Leave**

**메타, 다수 관리자들에게 “일선 업무 하거나 떠나라”**

-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사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관리자와 이사회급 직원들에게 일선 업무로 돌아가거나, 회사를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일선 업무 담당자는 다른 부하 직원들을 책임지지 않고, 코딩, 디자인, 연구 등의 작업에 집중하는 역할을 말한다.
- 한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는 지난 11월 직원의 13%를 해고한 바 있다. CEO Mark Zuckerberg는 이달 실적 보고서에서 “여전히 조직이 너무 느리고 비대하다”고 말하면서, 2023년을 “효율성의 해”로 정하고 실적이 저조한 프로젝트와 관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our in Five Gen Z Workers Want to Move Jobs This Year**

**Z세대 근로자 5명 중 4명, “올해 이직 원한다”**

- LinkedIn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18~24세 사이 Z세대 근로자들 중 약 80%가 더 나은 임금을 주는 새 직장을 찾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는 각계의 암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Z세대 근로자들은 지난해 초보다 승진이나 이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추세는 Z세대 근로자들이 대부분 팬데믹 시기에 첫 직장에 뛰어 들었고, 이로 인해 업무 성취감과 사회 기여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The Shopping Tech That Helps Influencers Make Money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돈을 버는 방법

- Linktree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42억 명 중 5억 명이 그것을 통해 돈을 벌고 있으며, 그중 약 6만명은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번다.
- 수많은 브랜드들이 인플루언서에게 홍보 수수료를 지불하며 지난해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약 160억 달러에 이르렀다. 6년 전보다 9배 늘어난 것이다.
- LTK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소셜 미디어에서 콘텐츠 노출과 판매량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브랜드 마케터와 인플루언서의 연결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 하지만 이미 많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에게 유리했던 인스타그램과 달리 최근 부상한 틱톡의 알고리즘은 무작위 노출에 가까워 누가 만들었는지에 상관없이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존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CVS Agrees to Buy Oak Street Health in \$10.6 Billion Deal CVS, 1백6억 달러에 Oak Street Health 인수 합의

- 약국 체인 CVS Health Corporation이 Oak Street Health Inc.를 1백 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며 1차 의료 사업에 더 깊이 진출하게 되었다. 치열해지는 약국 체인 경쟁 속에서 CVS는 최근 보험사인 Aetna 인수를 비롯해, 1차 의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저소득층과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Oak Street는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전역 169개 센터에서 15만 9천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 CVS는 코로나 백신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보험 부문을 가리지 않고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8백38억 달러의 4분기 수익을 발표했다.

##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바이든 "부채한도 조건 없이 상향해야"...부자 증세도 요구"

### 공화당 지출삭감 요구 비판하며 '억만장자 소득세' 신설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전제로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건 없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이 절대 의심받지 않도록 오늘 밤 여기서 약속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자신의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 "직전 행정부에서 미국의 적자는 4년 연속 올라갔다"면서 "이런 기록적인 적자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내 전임보다 4년간 부채를 더 많이 추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